



2012년 전세계 상위 25개 보험회사 현황과 시사점

김진억 수석담당역

■ 미국의 Best Week는 최근 2012년 수입보험료 및 자산 기준 전세계 상위 25개 보험회사와 순위를 발표하였음.

-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5위권 내에서는 Allianz SE와 Assicurazioni Generali¹⁾의 순위가 크게 상승한 반면 Japan Post의 순위는 2011년 3위에서 2012년 6위로 하락하였고, 미국의 Prudential Financial은 처음으로 10위권으로 진입함.
- 반면 자산 기준으로는 5위권 내에서 Japan Post가 2011년에 이어 여전히 최대 보험회사이긴 하나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3.4% 감소하였으며, 나머지 보험회사들의 순위변동은 없었음.
 - Japan Post에 이어 Axa S.A., Allianz SE, MetLife와 Prudential Financial이 뒤를 이음.

〈표 1〉 2012년 세계 최대 보험회사 순위

(단위: 억 달러)

수입보험료 기준 순위				자산 기준 순위			
1	Axa S.A.	1,064.3	프랑스	1	Japan Post Insurance Co., Ltd.	9,307.1	일본
2	UnitedHealth Group Inc.	997.3	미국	2	Axa S.A.	9,517.1	프랑스
3	Allianz SE	882.3	독일	3	Allianz SE	8,656.2	독일
4	Assicurazioni Generali S.p.A.	834.0	이탈리아	4	MetLife Inc	8,367.8	미국
5	National Mut Ins Fed Agricultural Coop	741.4	일본	5	Prudential Financial Inc	7,093.0	미국
6	Japan Post Insurance Co., Ltd	688.4	일본	6	Nippon Life Insurance Co.	5,858.6	일본
7	Munich Reinsurance Co.	663.2	독일	7	Assicurazioni Generali S.p.A.	5,839.0	이탈리아
8	Prudential Financial Inc	653.5	미국	8	Legal & General Group plc	5,599.0	영국
9	China Life Insurance (Group) Co.	587.2	중국	9	American International Group, Inc	5,486.3	미국
10	State Farm Group	576.2	미국	10	National Mut Ins Fed Agricultural Coop	5,442.7	일본

자료: Best Week(2014, 1. 6).

1)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60개국에서 생명·손해보험, 의료보험, 연금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임.

■ 미국의 Prudential Financial은 기업연금관련 대규모 거래로 수입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8위로 상승한 반면 Japan Post는 영업부진으로 순위가 하락함.

- 2011년 세계 순위 25위에도 들지 못했던 Prudential Financial은 2012년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69% 증가한 65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입보험료 기준 순위 8위로 올라섰음.
 - 이는 단 2건의 거래(Verizon Communications, General Motors)²⁾에 기인한 것으로써 무배당 단체기업연금과 관련한 수입보험료 300억 달러 유입에 따른 것임.
- Japan Post의 수입보험료는 보유계약 감소(2003년 이후 43%)와 저금리환경³⁾과 신계약에 대한 제약으로 전년대비 5.4% 감소한 688억 달러를 기록하며, 순위가 2011년 3위에서 2012년 6위로 하락함.
 - 반면 일본 National Mutual Insurance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는 수입보험료가 10.5% 증가하면서 5위로 진입

■ 5위권에 포함된 유럽계 보험회사들의 성장 원인은 사적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임.

- Allianz SE는 2012년 수입보험료가 882억 달러로 전년대비 4% 증가하면서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으며, 이는 당사 핵심시장인 유럽에서의 판매호조에 기인함.
 -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또한 이태리의 Assicurazioni Generali S.p.A도 핵심시장인 이태리, 독일 및 프랑스에서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전체 수입보험료가 소폭 증가(0.13%)하면서 한 단계 순위가 상승함.

■ 2012년 세계적 경제·금융환경 악화에도 생명보험과 기업연금판매를 통해 성장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사례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쟁력, 특히 퇴직연금보험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.

(Best Week 등)

2) 이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판매로 2012년 개인연금판매부진으로 위축될 수 있었던 미국 생명보험시장을 2.3% 성장시킬 정도의 대규모 거래였음(Swiss Re 2013. 6).

3) 일본 역시 저금리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개인생명보험시장이 커짐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은 9.2% 성장함.